

교향악단, 혁신의 시기가 왔다

이 나 리 메 · 음악평론가

얼마 전 어느 일요일 오후, 텔레비전 채널을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멀리서 들리는 듯한 '얇은 소리'에 이끌려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원제를 직역하자면 '백 명의 남자와 소녀'쯤 되는 1937년 영화 「오케스트라와 소녀」였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교향악은 당시 술한 화제를 뿌렸으며 대중과의 거리를 좁힌 공로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예술가와 후원자 그리고 경제'라는 화두를 따뜻하고 코믹한 해피엔딩 물로 그려낸 이 영화는 알아보니 우리나라에는 1959년에 개봉이 되어 교향악을 알리고 음악애호층을 확대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디즈니 영화 「판타지아」에 나와 그 특유의 뒤 실루엣을 필자의 기억 속에 생생히 각인시켰던 '미스터 스토크프스키'(Mr. Stokowski)는 자신이 이끌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 영화에 직접 출연했다. 영국 태생의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크프스키는 두 편의 영화와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향악을 알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 물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마에스트로와 단원들이 순수음악만을 고집하지 않고 숨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에 교향악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 짙고 감동을 주는 예술로 살아 숨쉴 수 있었다. 음악가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도 바로 그것을 위해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요할 것이다.

격변의 근대사 닮은 우리 교향악단의 역사

음악사에 남은 여러 가지 사건들 중 가장 '사회

성'이 크게 반영된 것 중 하나가 '서양 근대 오케스트라의 탄생'이 아닐까 싶다. 시민계급이 성장하면서 고전음악은 더 이상 왕족이나 귀족의 전유물이 아니었으며 음악가들도 그들에게 귀속되지 않게 되었다. 많은 관객들이 객석을 메우고 웅장한 교향곡 연주가 커다란 극장에 울렸다. 시대가 흐르면서 그 편성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작곡가들은 그 많은 악기 안에 자신의 영혼을 담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베토벤 시대에 정점을 맞이한 교향악은 사회 현상이 변화하면서 공연장 연주 문화로서 뿐만 아니라 방송·영화·대형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경기장, 국제 회의장 등 세계 곳곳에서 그 우아하고 웅장한 소리를 뿜내고 있다.

우리나라 교향악단의 역사는 우리 근대사처럼 격변을 거쳐 이어져왔다. 우리나라 관현악단의 시초를 어디서부터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 1928년 YMCA 안에 창설된 중앙악우회로 친다면 교향악단이 우리나라에 태동한 지는 어언 80년이 다 되어가는 셈이다. 100여 년 전 우리 장단과 곡조와는 다른 체계를 가진 서양 가락이 다른 많은 형태의 서양 문화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로부터 얼마 후 최초의 교향악단이 탄생했고, 역사의 변화와 함께 교향악단이 둘로 나뉘거나 새로운 교향악단이 생겨났고, 전쟁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근악대의 모습으로 변신하기도 했다. 전후에는 민간, 국립, 시립, 방송국 소속으로 모양새를 바꿔 가며 그 흐름을 이어왔다. 1980년대 이후에는 각 지방마다 교향악단이 창단되었고 짧은 역사에 비

해 양적, 질적으로 많이 팽창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들 교향악단들은 관객에게 선보이는 음악과는 언뜻 어울리지 않을 듯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어렵게 극복해내거나 때로는 그냥 떠안은 채로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서울시교향악단의 재단법인화가 남긴 과제

2006년의 시작과 함께 교향악단이 다시 우리 음악계의 화두로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교향악단의 양대 산맥인 서울시교향악단의 재단법인으로의 출범과 함께 KBS 교향악단도 큰 변화의 중심에 놓여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지휘자 정명훈을 음악 감독으로, 세계적인 교향악단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 산하단체로 있던 지난 몇 년간 서울시의 예산 지원 평균은 40~50억 원 수준이었고, 연간 수익은 2~3억 원 정도였다. 이번 재단법인화 이후 서울시와 그 외 지원수입은 120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티켓 판매와 회원모집, 특별연주(오페라와 발레 반주) 등의 자체수입도 20억 원으로 높여 책정되어 있어 총 140억 원 예산으로 새로운 법인을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써 단원들의 연봉도 2배 정도 인상되었으며, 새롭게 시행된 오디션을 통해 지난해에는 전체 단원의 5분의 1 정도가 바뀌었다. 그 후에도 올해 1월까지 6개월 정도의 과정에서 퇴직한 단원은 37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몇몇 수석 자리는 아직까지 공석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서로의 어울림이 중요한 교향악단으로서는 더욱 좋은 앙상블을 위해서 공석으로 남아있는 수석을 채워 단원 구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매일 매일 새로운 뉴스거리로 언론을 장식하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기획연주와 발레 앙상블, 특별연주로 실 틈이 없었는데 이어 올해 1월에도 어김없이 뻑뻑한 연주 일정이 잡혀 있었다. 1월 한 달만 해도 구민회관을 찾아가는 음악회, 두 번의 베토벤 기획 정기연주회, 실내악 연주회 등이 개최되었다. 전문 콘서트홀에 비해 열악한 음향 조건과 낮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관객 확보와 서울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교향악단의 '소리'를 나누는 일에도 열심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정명훈의 '티켓 파워', 변화된 사운드로 관객들의 초반 시선을 집중시킨 전략은 일단 성공했다고 보인다. 음악적인 면에서도 신년음악회와 세 곡의 베토벤 교향곡 연주 사이클은 과감하고 역동적인 것으로 그들의 성숙한 역량을 보여주기에도 충분했다. 아주 뻑뻑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휘자와 단원들은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네 번의 베토벤 시리즈 연주를 비롯한 음악 감독 정명훈의 서울 체류 시 연주회와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시리즈 일정만이 공개되었을 뿐 나머지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은 아직 내놓고 있지 못하다. 변화의 문턱에 선 교향악단에게는 설부른 기대일지 모르나 정확한 미션을 가진 예술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속속 기획되어 관객에게 제공될 때, 연주하는 예술가나 관객 모두 만족하는 예술단체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교향악단이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음악적인 수준, 즉 연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연주 분야도 마찬가지로 리허설과 연주를 통해 부단히 소리를 만들어야 한다. 교향악단이 내는 음의 색깔에 맞는 좋은 멤버를 구성해야 하고, 음악 감독과 긴밀히 협조하는 기획 및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베토벤 재발견 II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세계적인 교향악단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변화된 사운드로 관객들의 초반 시선을 집중시킨 전략은 일단 성공했다고 보인다. 변화의 문턱에 선 교향악단에게는 선부른 기대일지 모르나 정확한 미션을 가진 예술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속속 기획되어 관객에게 제공될 때, 연주하는 예술가나 관객 모두 만족하는 예술단체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운영팀이 필요하다. 또한 단원들이 소유하는 악기도 사실 교향악단의 음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나 동구권 교향악단은 과거 수려한 테크닉과 완벽한 앙상블을 자랑하는, 정열적인 연주로 열띤 박수를 받았는데 늘 한 가지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았다. 악기 자체에서 나오는 풍부하고 기쁨진 소리 때문이었다. 상대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은 미국이나 서유럽 교향악단이 내는 소리와 늘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웃 일본만 해도 NHK 교향악단 단원들은 좋은 악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더 많은 관객을 확보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교향악단의 울림을 받쳐줄 수 있는 음향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 리노베이션을 마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은 음향장비를 통해 확실하는 뮤지컬이나 팝콘서트의 경우에는 월등한 수준의 음향을 선보였지만, 고전음악 연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열악한 음향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단원 한명 한명이 지휘자와 동료 단원들과 함께 신명을 가지고 소리를 내야 그 신명이 관객들에게 전달될 터인데, 훌륭한 음악적 해석으로 악기 군과의 소리 균형을 유지하며 연주하려 애써도 연주공간의 울림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감동이 덜할 수밖에 없다.

모든 극장이 다목적홀화 되어가고, 그것이 경제성의 논리로 정당화될지 모른다. 그러나 교향악단의 특성상 미묘한 편성 차이, 악곡마다의 악기 구성 차이에서 느낄 수 있는 소리의 변화가 교향악을 듣는 큰 이유 중 하나임을 이해한다면 건축음향학적으로 교향악에 가장 적합한 음향특성에 따라 지어진 연주공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KBS 교향악단, 운영의 묘 발휘해야

‘교향악단 사업’은 고부가가치 산업도,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드러나는 사업도 결코 아니다. 그러나 교향악은 수지타산이나 경제적인 지표와 같은 잣대를 뛰어넘는 무형의 가치를 잠재력으로 지닌 ‘마그마’와 같다. 연주자와 관객의 비밀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작곡가의 정신과 지휘자의 해석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음의 세계, 연주자 한명 한명의 음악적 감성 등이 어우러져 관객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휴식을 주기도 하고, 상상력을 불어넣기도 하며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기도 한다.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사람의 감정은 움직이게 마련이다. 그래서 연

주자 개인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같은 교향악단이 같은 곡을 연주한다 하더라도 매일 매일이 다르고, 지휘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음악 활동이 사람의 감정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경영학 이론 중 '인간관계론'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대략 동기부여가 생산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인간관계론은 교향악단의 경영이나 연주에까지도 응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KBS 교향악단은 지난 역사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미뤄져 왔던 일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교향악단의 미래를 걱정하는 주위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두 교향악단의 상황이 서로 비교되는 것은 안타까움을 더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실력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단원들은 교향악단의 법인화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법인화 과정에서도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에는 예산이 증가하면서—자체 수입도 기존보다 열배 정도 높아야 하는 상황이지만—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지와 더불어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큰 티켓 파워를 지닌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함께 한다는 강한 이점을 갖고 시작한 것인데 비해, KBS 교향악단의 경우는 아직 그 나아갈 바를 더욱 진지하게 모색해야만 하는 단계이다.

물론 그동안 여러 전문가나 단체에 의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재단법인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선행되어왔다. 이런 논의를 거쳐 도출된 결론인 재단법인화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KBS라는 방송 조직의 특성상 교향악단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인력을 배치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었고, 교향악단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획의 부재가 교향악단이 성장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어왔다는 것이

다. 지금의 체제로 24년을 지내오면서 KBS는 교향악단 운영을 효율화하고 활성화하는 전문적인 연구나 정책을 드러내 보인 적이 없었다. '비영리와 수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모순된 개념과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화사업이라면 시청자를 위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교향악단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KBS홀 또한 공개방송을 위한 홀이지 전문음악당은 아니다. 영국 BBC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방송국 산하에 5개 교향악단이 소속되어 있는데, 연주와 녹음을 할 수 있는 홀과 스튜디오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다. 방송국에 속한 교향악단으로 정기적인 방송 프로그램이 기획되지 않고 있는 것도 교향악단의 효율적인 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론 방송국은 시청률과 제작비 문제로 날로 상업화되고 강렬한 자극을 주는 프로그램만이 살아남는 형국이지만 공영방송임을 감안할 때 교향악단을 이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BBC 교향악단이나 NHK 교향악단은 독립된 법인으로서 지원은 받지만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정기 방송 프로그램과 여러 특집 시리즈에 출연하고 있고, 특히 BBC FM방송은 BBC 산하의 교향악단뿐만 아니라 영국 유수의 교향악단들을 방송에 참여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BBC 디지털 TV 채널의 경우는 디지털 방송 테크놀로지와 결합한 교육적 음악 프로그램을 제작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과거 연주회 중계방송 형식의 프로그램 제작을 탈피해서 방송 내용에 더욱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적절한 교향악단 관련 프로그램 제작에도 열의를 기울여 새로운 방송 문화 정립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KBS 사측과 교향악단이 법인화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지만 그런

조직의 내부 마찰로 인한 운영의 소홀함이 외부로 드러나게 된 것은 그 단체의 음악을 아끼는 관객들을 배려하지 못한 실수라고 하겠다. 어느 단체나 그 단체만의 특수한 생리가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운영에 있어서 많은 미숙함이 드러날 수도 있다.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 관객들에게 충실한 내용의 음악을 제공할 수 없게 한 것이다. KBS 교향악단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올해로 벌써 50주년을 맞이하는 성숙한 교향악단으로서 KBS 교향악단은 전문적인 운영과 자생력을 키우는 일에 좀더 적극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공식이었던 상임 지휘자를 조속히 결정해 음악적으로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에 더욱 깊해야 할 것이다. 교향악단 단원들도 진정한 생존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한다.

좋은 연주환경이 좋은 소리 만든다

마지막으로 두 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를 간략히 되돌아보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올해 KBS 교향악단의 첫 연주는 지난 1월 12일, 전주에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신년음악회로 열렸다. 프로그램은 가벼운 소품들과 가곡, 시벨리우스의 「핀란드리아」와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중 1악장 등이 연주되었는데, 이 공연은 모 금융기관이 초청한 음악회였다. 요즘 같은 지방화 시대에 우리나라 최고 교향악단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음악회를 지방에서 시작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예술가의 신명이 살아날 수 있는 음악회였는지는 의문이다. 혹시 새해 첫 음악회부터 교향악단의 자생력 혹은 수익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중요한 것을 간과하는 것은 기획자나 연주자 모두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KBS 교향악단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성숙한 교향악단으로서 KBS 교향악단은 전문적인 운영과 자생력을 키우는 일에 좀더 적극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공식이었던 상임 지휘자를 조속히 결정해 음악적으로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에 더욱 깊해야 할 것이다. 교향악단 단원들도 진정한 생존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한다.

서울시립교향악단도 역시 핀란드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 전 악장을 연주했다. 앙코르곡을 연주하기 전에 지휘자와 전 단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며 관객들에게 친절한 새해 인사를 건넸다. 관객들은 환호로 답했다. 악기를 지닌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모아 어떤 말을 전한다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친절한 행동이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음악을 듣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일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결국 마지막까지 가슴에 남는 것은 ‘좋은 내용을 가진 소리’인 것을. 오로지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주자들에게는 그들 삶을 올인할 수 있는 연습과 연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연주자들은 그 무대에서 최선의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